강임준 군산시장, 국가예산확보 구슬땀

기재부 및 국회 연일 방문, 주요 역점 사업 반영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용 및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사업 등에 필요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용 및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사업 등에 필요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시장을 비롯해 시 예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데 이어 20일 국회를 찾아 설득과 지원요청을 하는 등 총력대응을 펼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먼저 19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군산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동자 대체(인증)부품 관련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며 예산확보 활동에 매진했다.

이날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 임기근 행정예산심의관 등 주요 인사를 방문해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부품 기업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인증)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 수제 맥주·청주 특화사업 ▲ 군산~어청도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등 이다.

이어 강 시장은 20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운천 의원(예결위), 인재근 의원(행안위원장), 서삼석 의원(농해수위) 등을 만나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과 박선춘 농해수위 전문위원 등 주요 국회 보직자와 면담을 통해 국회단계 추경 심의를 대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했다.

정부 추경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 공사 ▲동백대교 경관조성사업 ▲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 센터 운영 ▲항만역사관 건립사업 ▲비응항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등 이다.

강 시장은 "8월까지 진행되는 기재부 심의 기간 동안에 전북도와 김관영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아직 정부 추경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이나 목적예비비에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가지고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목적예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2019년도 총 7개 사업, 137.7억원의 목적예비비를 기 확보한 바 있으며, 하반기 추가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야시시, 으시시, 배시시' 야시장 개장

익산시,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이하 중매서시장)에서 오는 22일 '야시시, 으시시, 배시시' 야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한다.

야시장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3회 진행된다.

이번 야시장에서는 야시장의 명물 '귀신의 집' 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공포체험과 함께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다양한 행사가 시장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먹거리 품평회를 통해 판매자들을 선정했으며 중매서시장의 대표 상인이 판매하는 구수하고 맛깔스러운 먹거리와 지역 젊은이들의 재기 발랄함을 느낄 수 있는 간식거리, 특색 있는 먹거리까지 다양한 테마의 먹거리를 선보인다.

올해는 '3대가 즐겨 찾는 야시장'을 목표로 새로운 프로그램인 포토콘테스트와 체험이 가능한 플리마켓 등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와 공연 등이 진행되며 모든 연령대의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연합회장단은"3대가 즐겨 찾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할 수 있는 야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프로그램 개발로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중매서만의 야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선유도해수욕장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

군산, 8월 18일까지 감시활동

군산시는 오는 25일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바가지 없는 청정 군산 이미지 제고와 선유도 해수욕장 명품 휴양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유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2019.6.20.~8.18)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점관리 품목(24개)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가격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지역경제과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본부·소비자상담센터·선유도해수욕장번영회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바가지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선유도 주요장소에 물가안정 홍보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첩,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와 벽에 자율가격표 게시, △시민단체와 해수욕장 번영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해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국가산단 복합시설 개발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개선펀드사업 공모 선정 … 세진산업 부지 960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개선펀드사업에 익산 국가산업단지 내 세진산업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시설 개발 사업이 선정됐다.

이곳에 주거·물류·근린·체육시설이 한데 모인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국가산단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산업부의 올해 제2차 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익산 국가산단의 세진산업 부지를 '복합시설 개발사업' 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민간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등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펀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산업단지 재활성화를 위해 펀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시설의 고부가가치화와 근로·정주환경 개선 시설을 건립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다.

앞으로 조성될 복합시설은 현재 석재공장을 운영 중인 세진산업(어양동 513-18 일대) 부지면적 1만9487㎡에 기업지원을 위한 4층 규모의 물류시설과 지하1층, 지상2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편의·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에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960억원(국비 펀드 170, 민자 790)을 투입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세진개발의 복합시설 개발사업은 석재공장 이전을 통한 소음·분진 등의 민원해소 뿐 아니라 진행 중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재생사업과 함께 산단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인·허가절차 지원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일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첫 자립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31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된다.

익산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이달에는 4-6월분을 소급해 90만원을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가운데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과(859-5338)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명희 아동복지과 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학업과 취업 준비,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토대로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여름피서지 야외 수영장 개장

군산시는 무더위에 갈증을 해소시켜줄 여름피서지 야외 수영장을 오는 7월 3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개장해 운영 중인 군산 야외수영장은 매년 6만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군산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로 근대역사문화관광과 함께 다채로운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룡동에 위치한 야외수영장은 부지면적만 약 1만1617㎡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에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과 워터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돼 있다.

여름철 개장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매월 격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다.

입장료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유아 2000원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 20명 이상의 단체입장객 등은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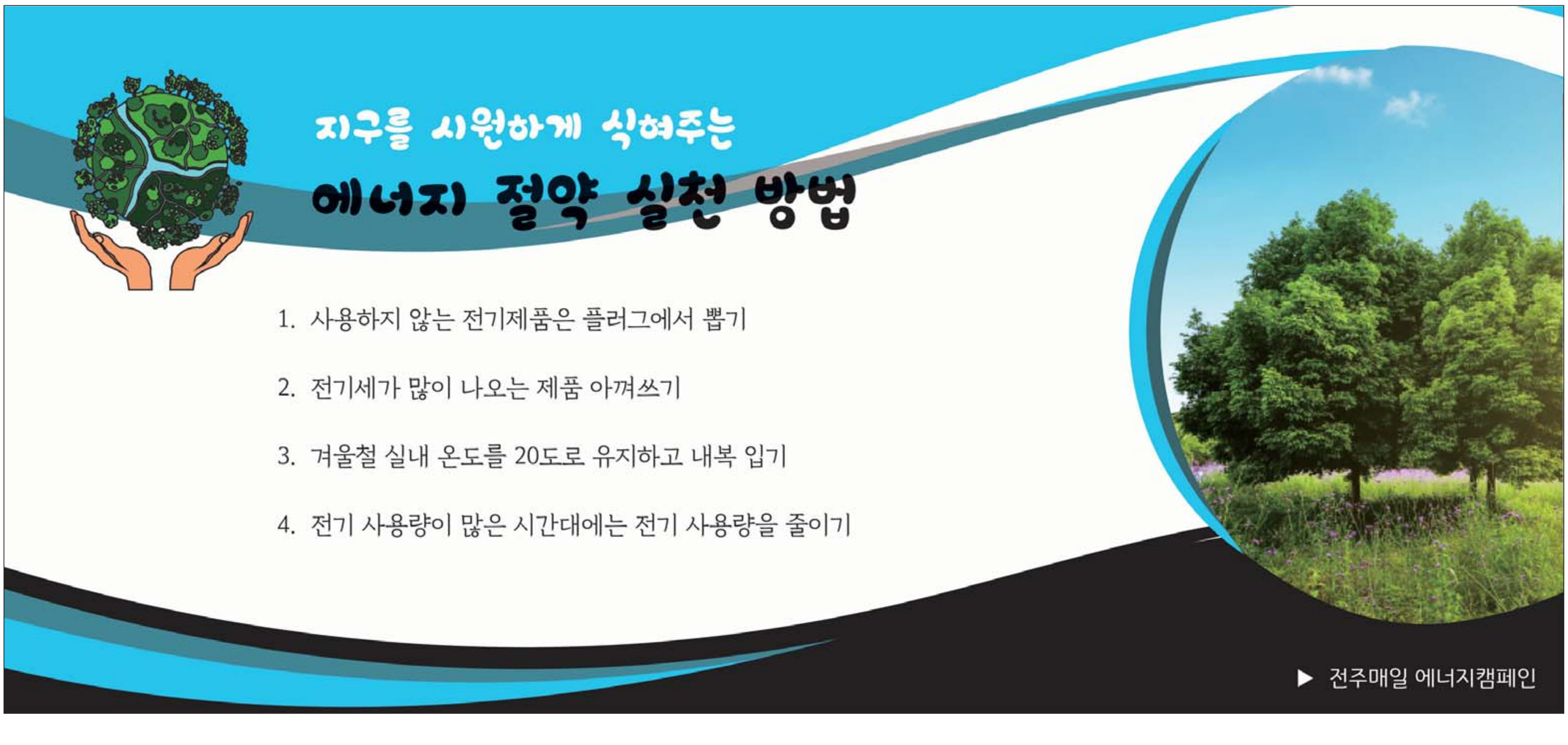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귀농·귀촌교육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귀농귀촌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방향 제시, 정착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과 융화 마인드 확립, 지역 농산물의 특성과 재배기술습득 등의 체계적인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매번 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원예특작과 가공현장 견학, 농기계 현장 실습교육 등 체험을 병행해 조금 더 친근하게 농업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1주일 동안 선착순으로 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에서 접수 받는다.

/익산=장양원 기자